

'기생충' 1000만 등극 황금종려상·대중성·호연 덕

영화 '기생충'이 1000만 영화가 됐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21일 개봉 5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봉준호(50) 감독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척 놀랐다. 관객들의 넘치는 큰 사랑을 개봉 이후 매일같이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배우 송강호(52)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관객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자긍심과 깊은 애정의 결과인 것 같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전했다.

5월 30일 국내 개봉한 '기생충'은 언론과 평단, 관객들의 관심 속에 흥행을 이어왔다. 개봉 후 연속 16일 박스오피스 1위 를 지켰고, 개봉 14일 만에 '역대 5월 개봉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가 됐다. '알리던', '토이 스토리 4', '스피디맨: 파 프롬 홈' 등 할리우드 대작들 속에서도 관객의 꾸준한 선택이 이어져 개봉 53일 만에 1000만명이 관람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영화로는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죄와 벌', '국제시장' 등에 이은 역대 19번째, 아바타,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등 7편의 외화를 포함하면 역대 28번째 1000만 영화가 됐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무엇보다 '기생충'의 1000만 관객 돌파는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 주요했다. '기생충'은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영화가 최초 공개된 후 각국 언론은 '봉준호는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인디와이어)', '가족 영화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특유의 다양한 전제성을 발휘한다(르포르)', '당신은 기생충을 보며 웃고, 비평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손뼉을 불어뜯게 될 것이다'(BBC) 등의 찬사를 보내 영화팬들의 기대를 한껏 올렸다.

봉준호 감독은 칸 입성 5번째, 경쟁부문 진출 2번째 만에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다. 앞서 봉 감독은 '괴물'(2006·감독주강) '도쿄'(2008·주목할 만한 시선) '마더'(2009·주목할 만한 시선) '옥자'(2017·경쟁로 칸에 진출한바 있다. 칸영화제는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 중 가장 명망있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수상의 의미는 더욱 크다.

진승현 감독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이 가장 큰 영광으로 보인다. 상을 못 받았다면 1000명이 불투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벤저스: 엔드게임'의 경우 100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밝혔다.

관영진 영화평론가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가장 영향력있는 칸에서 황금종려

상을 탄 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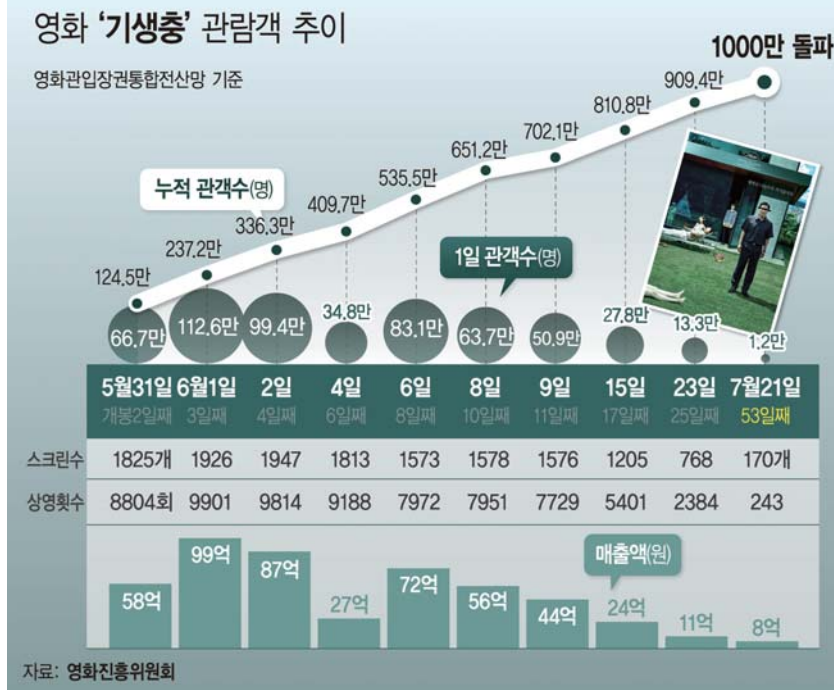
CGV 관계자는 황금종려상 수상이 50대 이상의 관람률을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50대 이상의 관람률이 높다. 황금종려상의 효과인 것 같다. 그동안 영화들 많이 보지 않았던 50대 이상들이 상대적으로 '기생충'은 많이 관람한 것 같다."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 지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예술성과 대중성(흥행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평가 받는다. 매 작품 개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회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담아내면서, 평단뿐 아니라 관객들의 호평을 두루 얻었다. '기생충'으로 1000만 관객이 되기 전 이미 2006년 '괴물'로 1000만 관객을 올렸을만큼 대중성이 입증된 감독이다. '괴물'은 1091만명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며 국내 상업 영화역대 7위에 오른 작품이다. 2013년 개봉한 '실국영자'도 935만명을 불러들였다.

'기생충'은 개봉 직후부터 N차 관람이 이어졌다. CGV에 따르면 '기생충'이 개봉한 날부터 이달 18일까지 재관람률은 5.1%로 상위 10개 영화의 평균치인 2.9%를 훨씬 상회한다. 또 다양한 포스터 패러디와 유행어도 나왔다. 관객들은 저택 정원 속에 있는 두 가족들처럼, 풀밭 사이에서 찍은 인증샷부터, 포스터 앞 눈을 가리고 있는 인증샷 수석을 들고 찍은 인증샷까지 각자의 창의적인 사진으로 SNS를 장식했다. 심지어 '기생충' 패러디 전용 필터를 출시한 앱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뭐지 알아?" 등 계획이야, "디스패" 등 각종 대사는 일상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영화적 재치가 탁월하다. 이야기가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섬뜩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장면이 계속 나온다. 묘한 충돌인데, 그런 충돌에서 나오는 짜릿함이 있다. 비극적이고 잔혹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폭스실소가 주는 묘한 긴장감이 있다. 그런 긴장감이 끝까지 영화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관영진 영화평론가는 "이유리 큰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화가 관객에게 호소력이 없다면 흥행할 수 없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 작품의 성격상 작품성을 추구하면서 대중성, 오락성도 함께 가져간다. 흔히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두 요소가 꼭 대립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잡기가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하는 감독의 능력과 스타일이 있다. 장르 영화의 달인이면서 개성있는 작품들을 두루 얻었다. '기생충'으로 1000만 관객이 되기 전 이미 2006년 '괴물'로 1000만 관객을 올렸을만큼 대중성이 입증된 감독이다. '괴물'은 1091만명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며 국내 상업 영화역대 7위에 오른 작품이다. 2013년 개봉한 '실국영자'도 935만명을 불러들였다.

◇선명하면서도 열린 주제의 식

'기생충'은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이 갈등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상을 보여줬다. 이러한 계층 차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보편적인 현상으로 한국사람들뿐 아니라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가능하도록 한 결말은 관객들로 하여금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에는 조회수 100만명이 넘는 '해석 영상'이 다수 생겨났을 정도로 관객들은 마지막 결말에 대한 해석을 두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BBC는 "'기생충'은 사회 계층 간의 역학 관계를 탐구하는 블랙 코미디 스릴러"라며 주제의식에 주목했다. 가디언은 "'기생충'은 극중 주인공이 끄는 마르세데스 벤츠만큼 부드럽게 전개되는,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풍자적인 서스펜스 드라마 장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은 부자집에서 일을 구하는 가난한 가족 사기단을 다룬 사회 풍자극"이라고 썼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기생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고착화된 계층문제를 시각적으로 날카롭게 포착한 영화다."

나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은 각성으로 이어졌다. 그 각성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걸 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다. 그런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해석했다.

진승현 감독은 "상을 받았다고 해서 작품의 내용이나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수상이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기생충'은 부자와 서민 간의 괴리를 잘 표현했고, 많은 관객들이 공감했다. 서민의 마음들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줬다"고 밝혔다.

◇배우들의 호연

'기생충'은 송강호, 이선균(44), 조여정(38), 최우식(29), 박소담(28) 등 연기파 배우들의 변신과 호연이 어우러진 영화다. 특히 극을 이끄는 주연들뿐 아니라 조연급 배우들의 연기도 돋보였다. 송강호의 아내이자 최우식, 박소담의 어머니 역할을 한 장혜진(54)은 이번 영화로 얼굴을 알렸다. 극중 가사도우미 이정은(49)은 중반부에서 극의 장르를 순식간에 바꿔버렸다고 평가될 정도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조여정의 자녀로 나온 정지소(20), 정현준과 이정은의 남편으로 분한 박병호(44)의 연기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연기력이 탁월하다. 감독이 배우들로부터 기대를 짊어졌다고 생각한다. 송강호는 물론 장혜진은 인생 연기를 보여줬다. 이정은의 그로테스크한 연기도 기가막혔다"고 평했다.

관영진 영화평론가도 "배우 캐스팅이 좋다. 연기력을 조화롭게 잘 뽑아냈다. 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재밌고 놀랐다는 반응 속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 ▶쥐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욕심만 앞세우면 실패를 자초하니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할 때. 2, 8, 12월생 운상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것. 도움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다.
- 소** ▶소띠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아무 생각 없이 믿었다가 손해 볼 수 있다. 애정은 마음만 들뜨게 하고 실속이 없겠다. 유혹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오는 것. 기, 오, 보성씨를 피하고 인내가 요구된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신난한 주위를 정리함이 어떨지.
- 호랑이** ▶범띠 갈 길은 멀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일이 좋겠다. 실력배양에 힘을 쓰고 요령이나 헛된 욕망을 갖지 않아야 한다. 서서히 빛이 보일 듯하다. 멀리할 것 멀리하고 집어야 할 자 꼭 잡아라.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돼지, 호랑이띠와 함께 힘이 좋을 듯.
- 토끼** ▶토끼띠 흔쾌하는 자를 은인으로 알고 칭찬하는 자는 적으로 일라. 잘못 된 것을 바로잡아 행동해야 미래에 빛이 든다. 경쟁자가 평가하고 있으니 진실을 보아야 한다. 4, 6, 10월생 제조업자에게 금운이 올 듯. 씨를 뿌린 후 때가 되어야 수확할 수 있는 법.
- 용** ▶용띠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지나친 확장보다는 현상태가 중요하다. 건축이나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지키는 것이 좋겠다. 철재를 다루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 1, 9, 12월생 여행길 황새. 빨간색으로 단장해볼 것.
- 뱀** ▶뱀띠 계획한 일은 잘 풀리겠으나 동기 간의 문제로 불화가 생길 우려. 말미와 연결될까 염려되니 언행 조심. 모임에 가거든 기쁨이 많은 음식은 삼가라. 체중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오, 서, 보성씨는 특히 조심. 두 곳에 투자하면 본전도 못 뽑는다.
- 말** ▶말띠 고진감래. 약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 아파도 참고 견디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외연한 자세로 때를 기다려라. 신병이 잦을 때. 금운은 원형이나 투자에 걸린다. 일출달뿔하게 느껴지는 애정은 더 늦기 전에 결단 요한다.
- 양** ▶양띠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참견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겠으니 주의하라. 애정에는 연성이지 않겠으나 오후에는 손조를 화목 유지를 듯. 1, 2, 3월생 검정색 옷은 불길하여 모든 것 중단. 하는 일 잘된다고 마음이 들뜨면 실수를 저지르 듯.
- 원숭이** ▶원숭이띠 일은 쌓이고 마음은 급한데 장애가 따르겠다. 혼자서 공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친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다. 1, 2, 8월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한 고비를 넘기는 지혜이다. 마음을 다스릴 것. 책임을 다하고 일은 마무리에 신경써야 할 듯.
- 닭** ▶닭띠 목적도 분명 못한 채 동서로 분주하지만 하니 성취가 어렵다. 침착하게 순서대로 처리함이 좋겠다. 동업을 피하는 것이 내일의 웃음. 아들보다 딸을 더 배려해도 좋지만 우애도 고려하라. 재물과 문서를 놓고 송사 있었으니 지나친 욕심은 금물.
- 개** ▶개띠 용기있는 자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투지를 품고 도전하라. 매사 서서히 풀릴 듯하니 자신감으로 설계하라. 여행에도 때가 있는 법. 지금은 아니다. 음주 조심. 5, 7, 11월생은 조심하라. 모임은 피함이 좋다. 후회할 일생길 듯.
- 돼지** ▶돼지띠 분수 밖의 지나친 욕심으로 확장했다가 힘에 겨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라. 북쪽에 행운이 있으니 친지나 동료와 상의하면 길할. 사랑 싸움에는 양보심이 정답. 애정은 술에 물탄 격이고 자금난은 풀릴 줄 모른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